

## 아시아의 미래: 일 년이 만들 수 있는 변화



(사진: 4X image/iStock 게티 이미지)

저자: 이창용과 Katsiaryna Svirydzienka

시드니 오페라가 실시간 공연을 재개했고 멜버른 시가 최근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를 (대부분의) 팬들의 참석 하에 주최했다. 일본은 연기된 2020 년 하계 올림픽을 다시 계획하고 있는 한편, 중국은 2022 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로부터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아시아는 또한 가장 먼저 회복하는 중이다. 코로나-19 발발 일 년이 된 지금, 아시아 지역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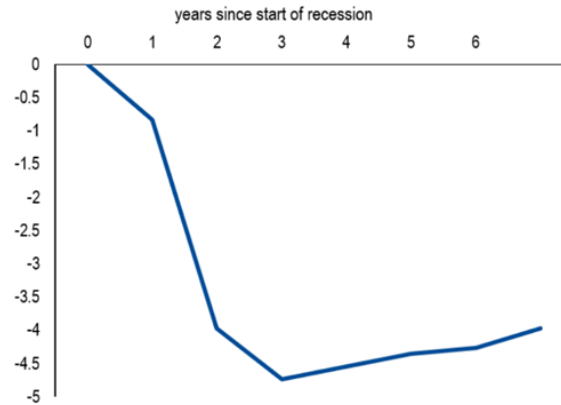
확실히 알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최고의 답일 것 같다. 팬데믹은 생산성 성장 둔화, 부채 증가, 인구 고령화, 불평등 심화 및 기후 변화 관리 등과 같은 기존의 장기적인 문제들을 악화시켰다. 새로운 IMF 직원 문서([new IMF staff paper](#))를 통해 아시아 지역이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장기적인 영향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이번 팬데믹은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선진국의 [과거 경기 불황들](#)을 살펴볼 때, 평균적으로 경기 불황이 시작된 지 5 년 후에도 생산량은 위기 전 동향보다 거의 5% 아래이며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 Growth, interrupted

Recessions tend to have a marked medium-term impact.  
(deviation of GDP from trend, in percent)



Sources: PWT, IMF staff calculations.

Note: Impulse response functions based on local projection method. Sample consists of 23 countries from 1970 to 2012. Recession definition taken from Martin et al (201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미 취약한 재정 상태를 보이던 국가와 기업들에게 일자리 파괴, 빈곤 및 불평등 악화, 공공/민간 부채 생성을 야기하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더할 수 없이 나쁜 상황)이 되었다. 이 전례 없는 경제적 혼란은 향후 수년간 주식 자본, 고용 그리고 생산성의 지속적인 하락을 통해 오래도록 지속될 상처를 남길 잠재력이 있다.

실업률 급등으로 고통받는 아시아의 노동 시장, 노동력 인구비율 급락 그리고 일자리 상실은 저임금 업계 그리고 여성 및 청년층에 집중되었다. 가장 취약한 초극빈층이 불균형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사회 보호망에 심각한 간극이 있음을 드러내며 아시아의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에 이미 만연한 높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 공공 및 민간 부채의 여파

팬데믹의 여파로 많은 국가들은 높은 공공/민간 부채 부담을 안게 될 것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관리가 어려울 정도의 부채가 생길 수 있다. 작은 국가에서 국가 부채는 문제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자간 파트너들의 지원 그리고 숨 돌릴 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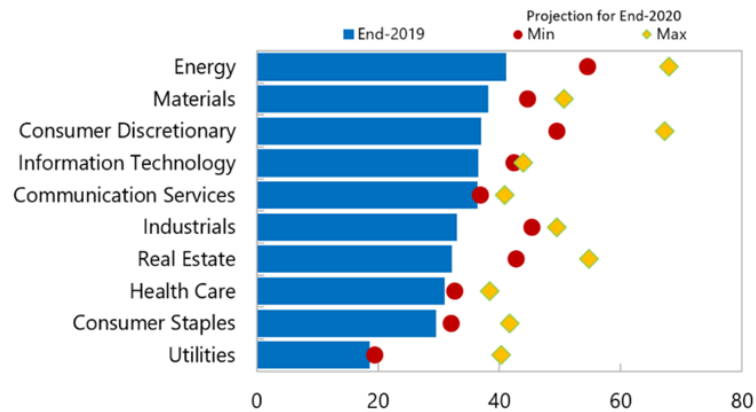
제공하는 채무 면제 방안과 함께, 수익 동원, 공공 재정 그리고 부채 관리에 추가적인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더 큰 신흥 시장의 경우, 주요 문제는 기록적으로 높은 민간 부채일 수도 있다. 늘어나는 기업들이 부채를 상환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생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을 통해 이러한 기업들이 가라앉지 않도록 돕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다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기업 부도가 파도처럼 밀려들 수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회복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 시장이 긴축되어 자본이 유출되고 기업 분야에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질 경우, 특히 아시아에서 극심할 수 있다.

### Not enough profits

Growing number of companies unable to service debts.

(percent share of firms\* not generating enough earnings to cover interest payment)



Sources: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and IMF staff estimates

\*In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가는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부채 해결을 위한 체계를 튼튼히 하고, 적절한 자금 조달 제공 가능성을 보장하며, 위험 자본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여 성장 분야에 대한 자원의 재분배를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이례적인 시기를 위한 방안**

대부분의 국가들은 충격 완화를 위해 상당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제공했다. 많은 국가들, 특히 신흥 경제국과 개발 도상국들은, 은행 및 채무자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이례적인 통화 정책에 의지하고 있다.

인도, 스리랑카 그리고 네팔은 가정과 기업에 구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채무 상환 유예 및 대상 대출 제도를 공표했다. 자본 및 유동성 커버리지와 관계된 금융 규제 요건들도 느슨해졌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중앙은행의 대출 활동을 통해 기업에 추가 유동성을 제공했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대규모 자산 매입 방법을 사용했다.

보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보다 공격적인 정책들은 불가결한 위험을 수반하며, 정책을 더 오래 사용할수록 그 위험은 증가할 것이다. 정책입안자들은 왜곡을 최소화하고 채택된 이례적 방안에 대한 분명한 출구 전략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현명할 것이다.

### **상처 치유하기**

보다 장기간의 경제적 “상처”를 막기 위해, 아시아는 경제 개혁을 신속히 단행하여, 생산성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고, 전분야에 걸친 자원의 적절한 재분배를 허용하며, 이러한 전환으로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혁 패키지는 잘 조준된 고용 지원금과 노동자 재훈련 체계, 사회 기반 시설 개선, 비즈니스 과정 간소화, 그리고 규제 및 세금 부담 감소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목표 대상에 대한 조건부 현금 지원으로 취약층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 안전망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을 공식 제도로 끌어들이는 보다 광범위한 지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더 나은 청정 미래**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은 또한 아시아가 실현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미래를 일견 보여주었다. 항공 및 운송 업계와 같은 에너지 집중 부문으로부터의 일시적인 자원의 재분배는 보다 생산적이고 청정한 부문에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잘 고안된 탄소세 패키지 그리고 현대적 제품 및 노동 시장 정책이 자본 재분배와 노동자 재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 및 오염 지역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활동은 기후 변화에 대항하는 지구촌의 노력에 많은 힘을 실어줄 것이며, 이 지역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개발 필요 요건을 충족시킬 보다 많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 개혁, 사회안전망, 노동 시장, 그리고 기업 부문이 이 팬데믹의 영향을 완화하고 이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팬데믹 이전부터 존재한 보다 장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항구적이고, 보다 깨끗하고, 보다 공정한 방식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아시아는 민첩함과 혁신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

**이창용**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이다. IMF에 몸담기 전에 이창용 박사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수석 경제학자였다. 그는 경제 및 개발 동향에 관한 ADB 수석 대변인이었으며 경제연구부(Economics and Research Department)를 총괄했다. 이 박사는 대한민국 G20 정상회의 대통령 직속 준비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의 단장이었다. FSC로 임명되기 전에 이 박사는 서울 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의 경제학 교수였으며 로체스터 대학(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조교수로 재직했다. 이 박사는 또한 대통령 비서실(Office of the President),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한국은행(Bank of Korea), 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 및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을 포함한 한국 정부 부처에 빈번하고 활발한 정책 자문을 하였다. 이창용 박사의 주요 연구 분야는 거시경제학, 금융 경제학 및 한국 경제를 포함한다. 이 박사는 이 분야에서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이 박사는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그리고 서울 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경제학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Katsiaryna Svirydzenka** 는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 보조이다. 현 직책을 맡기 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구과에서 경제학자로 재직했으며, 그 전에는 전략, 정책 및 검토부 신흥 시장과에서 근무했다. Svirydzenka 는 인도, 러시아, 말레이시아, 세르비아, 몽골 및 솔로몬 제도를 담당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재정 주기 및 여파, 네트워크 분석 및 제도적 위험, 그리고 생산성을 포함한다. Svirydzenka 는 제네바 국제 개발 연구 대학원(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에서 박사 학위를, 존스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국제 경제 및 국제 관계로 석사 학위를 그리고 불가리아 아메리칸 대학(American University)에서 경제학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